

2008년 12월 26일 금 말씀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은 한국사람 입장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해외는 해외 사람이 붙잡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배워서 지도자에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안 바뀌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뀌어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개인적인 문화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외 회원들이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회원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다며 새벽마다 기도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해서 썩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지역에 대학교가 없으면 중고등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개미도 생명 하나고 코끼리도 생명 하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일은 한 만큼 표가 나니 기도도 그러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처음에 천장만 쳐다보고 벽만 쳐다봤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어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음성이 선연하게 들렸습니다. "나랑 대화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깨달음을 머릿속에 넣고 왔습니다. 거기는 볼펜도 종이도 안 줘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주는 대로 7권 분량의 책을 계속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우고 왔습니다. 이런 원리로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매일 하면 완전히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하면서 계속 외우면 외워집니다. 몇 번씩 외우면 다 끝납니다. 완전히 외워집니다.

한국 와서 잊어버릴까봐 바로 썼습니다. 글 쓰는데 조금 느리니까 축소시키고 압축해서 썼습니다.

진작부터 하늘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머리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나이 먹어서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을 먼저 넣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니까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속적으로 보면 하늘 세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 사연이 깊어야 정도 들고 사랑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이 고생도 같이 하고 사연이 많이 있어야 정도 가는 것이라란 걸 알았습니다. 왜 내 고향에 정이 가는 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을 하다 보니 고생도 하게 되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하면서 그런 것들과 싸워서 힘들게 올라오고 하니까 사연이 생긴 것입니다. 월명동에 있는 돌을 보십시오. 돌 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돌은 그냥 누워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그 때는 힘든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오기 전 중국에 있을 때 새를 길렀습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가 3마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밥도 주고 정성스럽게 보살피주는데도 계속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가봤자 위험해서 죽을텐데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솔직히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언제 죽어도 죽는다고 그래도 새가 나가고 싶어 해서 두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다쳐서 오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새가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주인이 좋아서 길러주는 것을 아니까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